

## [부활, 우리의 소망 3] - 논쟁과 비유

민경석 목사 / 1996

예수님과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전면적 대립과 논쟁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정화 사건에서 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를 내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을 선언하시고, 그들이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음을 지적하신다. 오늘의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내어 쫓으시며, 무엇을 둘러 앉으실까? 오늘의 교회에는 위장된 강도는 없을까?

###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논쟁의 제1 라운드가 시작된다. 강도로 선언된 자들은 선포자와 선포된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한다. 가장 은혜로우며, 사랑이 넘쳐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논쟁의 격전장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은 멸망을 예언하셨고 (마 24 : 1 ~ 2 ; 막 13 : 1 ~ 2 ; 눅 21 : 5 ~ 6), 그 예언은 역사 속에 실현되었다.

우리의 교회는 기능과 가치를 상실하지는 않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결과는 어떨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이상히 여긴다. 나아가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명명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들은 분노에 가득차서 예수님께 왜 자신이 메시아로 불려짐을 묵과하는가를 비판한다. 만약 메시아라면 그 증거를 제시하길 요구한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와 젓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라는 성경을 인용하시고 논쟁의 장인 성전을 떠나신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함에는 논쟁이 필요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튿날 성전에서 제2 라운드의 설전이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당시의 강도들이 다가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고 따져 묻는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요, 자격시험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질문을 던진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고 물으면서 요한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평가

를 요구하신다. 그들이 자신들의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하여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하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 하리라』고 거절하신다. 그들은 진정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알면서도 말씀하시 지 않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 씀하시지 않는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질의한 질문들에 대답을 듣고 있는가? 만약 응답이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

예수님은 논쟁을 끝맺고 비유들을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신다. 예수님은 두 아들 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닌 비 유를 들어 설명하신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 시고, 다만 제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신다 (마 13 : 9 ~ 13, 막 4 : 33 ~ 34)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비유된 말씀을 풀어 해석된 생명의 양식 을 먹고 있는가?

####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 (마 21 : 28 ~ 32)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 람은 입술과 머리로만 순종하는 자가 아닌 회개하며 실천하는 순종자임을 지적하 신다. 예수님은 논쟁자들보다 그들이 죄악시 여기는 세리들과 참가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왜냐하면 세리들과 창기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논쟁자들은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라는 낱말에서 완전히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진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 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농부의 비유 (마 21 : 33 ~ 46 ; 막 12 : 1 ~ 12 ; 눅 20 : 9 ~ 19) 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을 지적하신다. 그들은 선지자나 인간 예수만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세우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빼앗길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길 소망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들 의 장애물로 등장한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하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한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 (마 22 : 1 ~ 14) 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기 위해서는 믿음의 예복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초청장을 가지고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선포하신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논쟁자들은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일단 후퇴한다. 그리고 모여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의논하고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시험한다. 납세에 대한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 계명에 대한 질문,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한다. (마 22 : 15 ~ 22 : 46 ; 막 12 : 13 ~ 37 ; 눅 20 : 20 ~ 44) .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더욱 강박해져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이겨 보고자 한다.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저주하신다. 사랑의 주님의 입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위의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지도 않는 교만에 빠진 자들에게 끝까지 인내로 대하신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논쟁은 저주의 선포로 끝을 맺는다. 비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끝을 맺는다. 예수님과의 논쟁은 필요없는 것이다. 생명은 논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영접과 고백과 순종을 통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에 생명의 총만감이 가득한가?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은 논쟁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셨으나,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신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늘 이 순간에도 .

/ 민경석 목사

\* 출처 - 온누리신문